

“잊지 않겠습니다”... 정치권 세월호 추모 잇따라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 등 팽목항 추모, 더민주 안산 참배 지역 정치권도 희생자들 녀 기리며 특별법 개정 촉구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정치권의 추모행렬이 이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희생자들의 녀를 기리며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 등 진실규명 활동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6일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세월호 2주기 추모식에 천정배 공동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박지원 의원 등 제20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참석자들은 팽목항 임시분향소를 참배한 뒤 함께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희생자 추모 및 세월호 선체 인양을 통한 미수습자 수습을 기원했다. 하지만,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안 대표는 대신 성명을 내고 “잊지 않겠다. 이런 참담한 희생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당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에 이종걸 원내대표와 조정식·김상희·이전열·박홍근·신경민·윤관석·전해철 등 수도권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일부 의원들은 오후 진도 팽목항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도 개별적으로 참석하기로 했지만, 김종인 대표는 정치적 공방이 야기될 가능성을 고려해 함께 하지 않았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리당은 곧바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나서 세월호가 무슨 이유로 침몰하게 되었는지,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국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철저히 밝힐 수 있도록 특조위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안산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2년 기억식에 참석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성명 내고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국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냈고 여당은 국정조사마저 무력화 시켰다”면서 “세월호 진실을 감추려는 세력은 역사의 죄인이다. 세월호 진실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그러면서 “다시는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광주시당도 논평을 통해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온갖 의문과 의혹에도 진실규명은 요원하다”면서 “20대 국회가 열린다면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여성 친화 고용환경개선 10개 기업 선정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여성휴게실·수유실 등 마련

여성에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사업이 시행된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6년도 여성친화기업 고용환경 개선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0개 기업을 선정해 최대 1000만원(자부담 10% 별도)까지 편의시설과 복지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휴게실, 수유실, 샤워실 등이 해당된다. 시는 여성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개선, 여성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 기업은 18일 현재 광주시에 있는 업체로, ▲세일센터와 여성친화 1

촌 협약 체결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여성근로자 50% 이상인 기업 ▲광주시 명품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중소기업인 대표기업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 게시된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해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광주시 일자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정대 시 일자리정책과장은 “광주지역 기업의 여성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등을 선도적으로 개선해 여성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고용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한다”며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과 여성근로자에게 실질 혜택을 주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녹색한우’ 전남서 가공해 홍콩 수출

공동사업법인, 홍콩 정부로부터 작업장 등록 받아

전남의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이 구제역 청정지역인 전남산 한우를 도축·가공해 홍콩으로 수출하기 위한 작업장으로 홍콩 정부의 등록을 받았다.

그동안 전남산 한우는 농협나주축산물물공장에서 도축 후 타 지역에서 가공해 홍콩으로 수출했으나 녹색한우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수출 작업장으로 추가 등록되면서 전남에서 가공까지 해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녹색한우는 전남의 광역브랜드다. 나주시 등 12개 시·군 8개 축협과 150여 농가가 참여해 8만 마리를 기르고 있다.

앞으로 전용 사양 프로그램에 의해 통일된 사료를 먹어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고, 친환경축산물과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된 고품질의 한우고기 위주로 수출할 예정이다.

녹색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은 통관 절차를 거쳐 빠르면 5월 첫 수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현재 홍콩 수출용 한우고기 제품에 대한 포장 표시(라벨) 심의 등 수출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과장은 “대규모 공장이 없어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한 전남산 한우고기가 홍콩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아 빠르게 시장을 확보하도록 협력하고,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윤장현 시장 18~23일 중국서 투자유치

의료·관광시장 개척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의료와 관광 분야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18일부터 23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윤 시장은 상하이에서 광주와 중국기업 8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의료기기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와 상하이 의료산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상호협력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어 자매·우호도시인 산시성 창즈와 허난성 위양을 방문해 각 도시의 시장을 만나 관광교류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창즈시에서 광주 관광설명회를 개최, 여행사 대표와 관광업계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남도음식체험, 정음성 음악 등 광주시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소개한다.

윤 시장은 이어 양저우를 방문해 지난날 광주에 완성차 공장 설립 협약을 체결한 구룡자동차 본사를 찾아 공장 시설을 둘러보고 회사 최고경영자 등을 만나 세부적인 투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홍보관, 시청에 문 열여 지난 15일 광주시청 1층에 문을 연 ‘제11회 광주비엔날레 홍보관’에서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가 방문객들에게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홍보관은 광주비엔날레 기간(9월2일부터 11월6일)을 포함해 오는 11월말까지 8개월간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광주비엔날레 창설 배경·역사, 역대 주요 작품, 광주폴리 등에 대한 설명을 만날 수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서민 배려시책으로 ‘은정 전남’ 실현

금융복지상담센터·옥내급수관 설치 등 26개 시책 추진

전남도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등 정책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을 줄 26개 ‘서민 배려시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7일 “각 실국별로 발굴한 신규 시책과 기존 시책 가운데 성과가 좋아 확대 운영이 필요한 시책 가운데 신규 9건, 올해 첫 도입 시책 12건, 기존 시책 5건 등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서민 배려 시책은

이낙연 전남지사가 올해 시무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찾아내 시행할 것을 당부해 마련됐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금융지원’의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 ‘주말리은행’을 통한 생계형 채무자의 악성 부실 채권 매입·소각 후 빚 탕감 ▲신협 이용 소상공인 일수대출 금리 연 5.9%(기존 14.8%)로 인하, KEB하나은행 이용 중장비

사업자 장비 구입자금 대출 금리 연 3.8%(기존 10.0%)로 인하 등의 시책이 포함됐다.

‘농·어업인의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는 ▲소형하우스 설치 지원, 어업인 신용보증비율 90%로 확대 ▲10인 미만 거주업소 소형 발전시설 및 다목적 부잔교 보급 등이 추진된다.

‘저소득층의 주거·고용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옥내급수관 및 주택 안전시설 설치 지원, 주거환경 개선 ▲전남도 비정규

직 근로자 생활임금제 도입 등이, ‘노인·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 60~64세 포함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 2개소 운영 등이 마련됐다.

박순중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은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적기에 시행하고, 정책 수요자들이 시책을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신형 일수대출 금리 인하와 같은 전국적 모델이 될 만한 ‘서민 배려시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라식 vs 라섹

라식 수술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라섹 수술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밝은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